

교육 현장과 이론을 삶과 연결하는 무용교육 질적연구에 관한 지침서

박 정 선*

Stinson, W. Susan(2016). *Embodied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Arts Education: A Dance Scholar'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Springer.

무용교육에 관한 질적연구는 연구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어떠한 사실(fact)들을 도출해내기 보다는 무용교육을 통한 살아있는 경험 이야기와 현상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의미(meaning)와 가치(value)들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단순한 이론적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질적연구는 독자들에게 더 생생하게 저자의 교육적 관점을 전달시키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질적연구 방법론이 무용교육분야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자 혹은 연구자로서 변모해가는 사회, 정치, 문화의 문맥을 읽어내고 무용교육과정 혹은 자신의 교육현장을 바탕으로 중요하면서도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용교육의 가치와 그것의 현장성을 연결해 가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수잔 W. 스티슨의 저서 『*Embodied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Arts Education* (예술교육의 교육과정 이론과 연구 구현)』은 그녀의 지난 연구들의 발자취를 한 책으로 묶어 무용교육과정 이론과 관련된 그녀의 사고와 연구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볼 수 있는 책이다. 본 저서는 출판사 Springer 시리즈(Landscapes: the Arts, Aesthetics, and Education)의 한 부분으로 출판되었고, 총 20장으로 이루어 졌으며,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미 저널에 게재되었던 논문들로 굳이 이 책이 아니어도 그녀의 대다수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연구들을 주로 단원별 연대기식으로 나열하여 구성하였기에, 수잔 스티슨의 연구 흐름과 변모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원을 세 개로 나눈 것도 수잔의 연구 흐름과 개념을 전략적으로 읽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연구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의도와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게 한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교육과정, 교육학, 그리고 교육실전에 관한 연구들을 모았다. 2장은 주로 예술 교육 과정과 관련된 미학적 차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도덕적 차원과의 관계성에 집중하였다. 미적 물체를 렌즈로 사용하여 우리가 사람인 존재의 현실을 보거나 감각하게 하는 지각하는 사람

* 중앙대학교, 한성대학교 강사, jsp349@gmail.com

(the perceiver)과 보다 큰 규모의 세계(the larger world)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조점을 도덕적 문제에 상응하는 미학적 모델의 커리큘럼으로 제안하였다. 3장은 당시 미국에서 학문 기반의 예술 교육(Discipline-based arts education, 이하 DBAE)으로 알려진 커리큘럼 접근법의 가장 두드러진 시점에 작성된 연구이다. 대부분의 예술 교육자들이 DBAE를 구세주로보고 교과 과정의 경계를 넘어 예술 교육을 중앙 핵심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팽배했다. 이러한 시점에 수잔 스티슨은 이 DBAE에 대한 양면성을 설명하면서 교사교육은 콘텐츠나 방법론에 관한 사고의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연합하여 학교교육의 정의와 정체성, 의미, 그리고 공동체성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사회 부조리나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학생들 자신의 정체성을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자의 내면성을 확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4장은 무용교육자이자 페미니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무용교수법(전통적 무용교수법, 비판적 무용교수법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페미니스트 교수법과 연관 지어 본인의 페미니스트 무용교수법을 설명한다. 5장은 무용교육자들에게 교과 과정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을 안내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 대신에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러한지,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러한 가치들이 내가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공하면서, 저자 자신의 가치들과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공한 질문들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제3자의 입장으로 연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인 나로부터 질문을 던지고 연장시켜나가게 하는, 연구와 연구자의 거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하는 삶이 녹아진 연구로 느껴지게 한다. 또한 이 개념은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한 교육학자 파이너(Pinar)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를 주체화로 보는 파이너의 교육과정이론은 전통적인 목표중심의 교육과정(대표적으로 타일러(Tyler))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미리 정해진 교육목표에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는 교육과정보다는 내적 경험에 강조를 두고 각개인의 의미를 성찰하고 찾아가게 하는 과정이 수잔의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7장에서는 “신체(body)”에 관한 연구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비판적 사회이론 간의 이야기를 “듀엣(duet)”과 같은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있다. 8장에서는 “숨겨진 커리큘럼(the hidden curriculum)”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며 무용교육에서 드러나는 성별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저자는 숨겨진 커리큘럼은 학교뿐만 아니라 댄스 스튜디오를 포함한 교육 기관의 수여 된 구조와 관행을 위해 취해진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성찰로 시작하는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9장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은 최종적인 것이 없으며, 항상 특별한 맥락에서의 한시적 결정들을 내릴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가정(예를 들면, “창의적 무용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natural)’ 움직임을 사용한다”와 같은 표현)을 비판하고 있다. 무용교육가로서 정답만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에 깨닫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한다고 주장한다. 10장은 수잔의 역사적 자선전과 같은 연구물로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당시 2010년)의 본인의 경험을 살펴 보고, 다음세대를 위해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던지고

있다. 11장은 무용교육 표준과 평가에 대해 재고찰 함으로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미국의 무용교육 표준과 평가가 실용적인 문제나 기술습득에만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가며,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 이었다면, 두 번째 단원은 주로 연구(법)에 대한 것이다. 12장에서 15장까지는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16장부터 19장은 이러한 연구법에 근거한 실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12장은 1985년에 쓰인 연구물로 당시 무용교육에 관한 낮은 관심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들의 비호환성 때문이라고 보고, 수잔은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자서전, 민족지학과 같은 연구법의 대안들을 소개한다. 13장은 앞선 단원들의 연구의 연장선상으로서 지각하는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그사이에서 이뤄지는 의식적인 교류를 안무하는 과정에 접목하여 설명하는, 연구자가 어떻게 자신의 사고와 깊이 연결하여 나가는지 볼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수잔 자기 자신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연구법을 가르치는 그녀의 독특한 방법을 엿볼 수 있고,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14장도 앞장과 비슷한 형태로 2명의 공저들과 함께 무용대학원생들의 연구법과 글쓰기 가르침에 관한 연구를 보여준다. 15장은 2013년에 발표된 무용교육의 두 개의 중요기관의 리포트를 분석하고 저자만의 전문적인 의견과 선택들을 설명하고 있다.

16장은 만16-18세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이 여학생들이 무용수업을 통해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내는지 현상학적이면서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17장은 무용수업에 참여하고 대학생들의 무용경험에 관한 연구이며, 18장은 중학생 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fun)”에 관한 주제의 질적 연구를 보여준다. 19장은 현재 템플대 교수인 케런 본드(Karen Bond)와의 공저 연구로서 젊은 청년들의 경험과 무용수업의 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참여와 비참여의 경계는 이분법적이기 보다는 연속선상에 있음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게으름과 다른 개인적 실패에 대한 노력의 부족을 비난하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즉, 학생들의 수업의 비참여의 문제는 학생들의 게으름과 개인적 실패와 쉽게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과학적인 접근방식의 연구로서는 얻어낼 수 없는 무용교육의 구체적인 면모와 현상들을 발견해 내고, 내면적 의미와 가치를 풀어내어 해석하는 연구법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서는 한 장의 연구만 포함되어졌고, 본 저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수잔 스티슨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녀의 가르침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녀의 삶과 가르침이 어떻게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이해에 통합되었는지 나누며, 교육자로서 삶의 변모를 보여준다. 수잔 스티슨은 마치 아이디어를 내고 동작을 만들어 안무하는 무용가처럼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이분의 연구를 읽을 때 “살아있는” “생생한” 연구 내용들을 접하는 것 같았다. 특히, 본인이 박사과정에 있을 때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분의 연구들을 많이 읽고 공부했던 것이 기억난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연구가 통합된 저서를 다시 읽으니 마치 미국 무용교육의 역사의 산증인이자 한 획을 그은 분이 다음세대 무용교육자와 연구자들에게 남기는 회고록처럼 느껴진다. 수잔 스티슨이 본 책의 서론에서 본인의 연구를 한 대 묶어 편찬하여 출간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또한 밝혔다. 자신의 오래된 연구들에도 하나하나에 다시 회고하고 자신의 논평을 담아내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질

문을 던지고 자신의 교육 현장이나 교육 철학에 대해 반성하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의미를 발견해가는 ‘성찰하는 연구자(reflective researcher)’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끝으로 무용교육의 (특히 미국의) 역사적 발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질적 연구법을 통해 무용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표본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많은 무용교육자 및 연구자들에게 무용교육에 대한 열정에 불이 지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